

1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48개사 지정

조달청, 세계적 기술이 적용된 산업용 필터 의식형 의약품 주입기 등 생산 업체들 대상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020년 1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패스기업)으로 48개사를 신규 지정했다.

지 패 스 (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이란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지패스기업은 지난 2013년도 95개로 출발하여 연 4회, 분기마다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총 708개 사가 됐다.

1분기 48개사는 해외 수출 경험 및 우수 기술을 갖춘 기업과 세계적 기술이 적용된 산업용 필터, 이식형 의약품 주입기, 사물인터넷 교통시스템 등 유망 제품 생산 기업들이다.

신규 지정 기업들이 희망하는 주요 거점 국가는 전통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신남방 국가와 아랍 에미리트,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이다.

조달청 자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신남방 26개사, 미국 10개사, 중국 8개사, 기타 4개사 등이다.

지패스기업으로 지정되면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참가, 유통업자(벤더) 등

록과 입찰서 작성 지원 등 기업의 수출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패스기업이 정부기관의 다양한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해외 조달시장은 약 9조5,000만 달러 규모의 초거대 시장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공략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패스기업에 특화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해외조달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6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막전막후'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서 달러화 가뭄으로 '패닉' 상황에 몰렸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리는 계약으로 일종의 '미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외환 안정관 역할을 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됐다가 2010년 끊긴 한미 통화스와프가 10년 만에 재개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 공조 덕분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주열 한은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물밑작업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적은 의견을 교환하며 통화스와프 체결 의사를 전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 특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우리 사정이 어려워지다보니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요청했다”며 “미국에서도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좀 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같이 작용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총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것에 대해 “재정 당국만으로는 50조원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한국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미 연준과 파월 의장에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의 ‘공’을 돌렸다. “며칠새 실무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관계가 작용한 점”이라며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고, 파월 의장이 상당히 신속하게 역션을 취해준 결과로 대단히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파월 미 연준 의장
'하라인' 가동
문 대통령, 두 차례
걸쳐 감사의 말 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편지' 지원도 주효**

지난 20일 금융권에서는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은이 주도하고, 기재부가 뒤에서 받쳐준 결과라고 보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 제안은 한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그 때 회담을 가졌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자회담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한국 금융시장 상황과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 상당 기간 한국에 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며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기 시작하던 때다. 이 총재는 당초 귀국일을 하루 앞당겨 국내로 돌아왔다.

귀국 이후에도 파월 의장과 지속

파월 의장과 '하라인' 가동이 가능했던 건 이 총재와의 깊은 인연 덕분이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첫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멤버다. 같은 이사회 멤버인 파월 의장과 국제회의 등을 통해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2018년 연임에 성공해 햇수로 7년째 한은 총재를 맡고 있는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의 친분이 두텁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비상경제회의의 시작과 끝에서 이 총재에 감사의 말을 전한 것도 결국 한은이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냈

홍남기 부총리의 지원도 주효했다. 홍 부총리는 직접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 직접 편지를 적어 보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2008년 10월 첫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 워싱턴 주미 대사관 재경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신속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가능케 했다. 미국 역시 글로벌 자금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위기가 완화돼야 통화정책 악발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성명에서 이번 통화스와프에 대해 “글로벌 달러 자금 시장의 긴장을 완화해 국내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통화청 등에도 동시에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



지난 20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전북은행 성금 기탁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임용택 전북은행 은행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성금 전달식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해요'

전은, 전북도에 성금 1억6700만원 기탁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0일 전라북도도를 찾아 성금 1억6,700만 원을 기탁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임용택 전북은행장, 김성철 부행장, 이성란 부행장, 김동수 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전북도에 5,000만원, 전주시 4,000만원, 익산·군산시 1,000만원 등 각 시군별로 기탁되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임용택 은행장은 “우리가 마련한 작은 정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은행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 해준 전북 은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20일부터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도울 90명의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강사를 선발했다.

그동안 60명의 민간강사가 2,880회의 교육을 통해 총 7만946명의 국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90명으로, 최종 선발자는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을 수료한 뒤 오는 7월부터 1년간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관한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모집 일정 및 지원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극복 원예농가 돕기

남원농협, 오이·상추 재배 농가에 포장자재 지원 등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농가를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서며 환영받고 있다.

남원농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관내 학교 개학연기 및 요식업 이용률 저하로 인해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확철을 맞은 오이, 상추 재배 농가에 포장자재 5,000박스를 지원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남원시지부와 관내 농축협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천만 원을 남원시에 기탁한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확산예방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제2기 주니어보드' 출범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제2기 주니어보드가 출범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니어보드는 40세 이하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이사회로, 공사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및 참신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젊은 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 운영 혁신을 도모하고, 업무환경 개선 및 조직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안전 365' 로 안전보건 인식 높인다

농진청, 건강안전 정보센터 개선... 접근성 용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인이 필요한 건강안전 정보를 얻고,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센터를 개선한 '농업인 안전 365' (http://farmer.rda.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농업인안전365는 농업인 안전재해 사고사례를 사고유형, 농기계 종류, 발생 장소 등으로 구분

해 다양한 사고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요 사고 내용과 원인, 대책을 1쪽(One sheet)으로 간단하게 구성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건강안전 관련 통계를 다루는 '농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를 통해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통계 ▲농업안전보건센터 전국 5개소의 통계 ▲산업재해, 농업기계 사

고 등 유관기관 안전보건 통계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공하는 '안전재해 지도서비스'는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를 통계로 기반으로 지역별, 연도별로 시각화한 것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공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농업인안전 365를 활용해 농업인은 농작업 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재해 사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상 기자

'농작업 인한 상해·질병·사망까지 보장'

전북농협, 농업인 대상 'NH안전보험'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질병을 보장해주는 농(임)업인 NH안전보험(무)을 판매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가입연령은 만 15세에서 84세이며 농작업을 영위하면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건강 상태면 가입이 가능한 정책 보험이다.

농(임)업인들은 국, 도, 시·군비보험료 80% 지원과 농축협에 따라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농(임)업인들의 가입 부담이 적다.

또한 2020년도 2월 상품개정을 통하여 가입유형이 4종으로 단순화 되었으며 일반 1형의 경우 유족급여금 6,000만원, 산재형은 최고 1억2,000만원을 보장한다. 장해로 인한 재할 및 휴업기간에 급여금을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하여 보장성이 강화되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신규 및 재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며, 인원대비가 임금이 낮은 여성농업인의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김윤상 기자

다양한 사고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요 사고 내용과 원인, 대책을 1쪽(One sheet)으로 간단하게 구성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건강안전 관련 통계를 다루는 '농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를 통해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통계 ▲농업안전보건센터 전국 5개소의 통계 ▲산업재해, 농업기계 사

KBIZ 중소기업연구소

표준 공동기술 개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수출을 방지하고자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소기업회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구성과물이자, 지난 2월 18일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이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였다.

이들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하였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제고했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